

## 대학사회의 혈액순환 촉진을 위해

徐 之 文

(高麗大 英語英文學科)

대학교수라는 것이 일생동안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하는 寧日이 없는 직업인 줄은 알았지만 강의 그 자체가 그토록 중노동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내가 봉직하고 있는 학교의 내 소속학과가 특히 학생이 많기 때문에 대단위강의를 하니깐 더욱 더 중노동이지만, 규모가 비교적 작은 강의라도 한 시간 동안 다수의 젊은이들에게 知的인 양분이 되고 생각의 토양이 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정말 찢먹던 힘까지 다 뽑아내는 일이라는 것을 예전엔 미처 몰랐었다.

우리의 주변에는 연륜이 쌓임으로써 중후한 가운데서도 예지가 번득이기보다 나태하고 무기력하고 타성적인 노교수가 많이 보인다. 내가 교수사회에 처음 발디딜 때에는 어떤 유형의 노교수로 변해가는가는 교수들 각자 하기에 달렸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교육기관과 사회구조가 교수들을 일적 노쇠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냥 표류를 하고 말 것이다. 교수들 자신은 끊임없이 자신을 단속하고 관리해서 연륜과 함께 고갈되지 않고 실력과 통찰력이 축적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사회도 교수의 고갈을 최소화하도록 교육환경을 정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또 이미 고갈이 된 교수는 편안하게 교직을 떠나서 활력있는 신진교수에게 길을 열어줄 적절한 제도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내가 지금 봉직하고 있는 고려대 영문과에는 학부생이 거의 500 명이고 대학원생도 100 명에 가까운데 현재 교수가 11 명이다(사실 여기에는 과거에 학교에서 T.O.가 나와도 충원을 제대로 못했던 탓도 있다). 그래서 학부의 전공필수 같은 과목은 100 명 이상, 150 명 수강도 보통이고 선택과목도 학생수가 그보다 크게 적지 않다. 그리고 물론 대단위강의도 시험과 리포트 모든 것을 교수 혼자 채점하고 처리해야 한다. 대학원 지도학생도 재학생만 20 명 가까운 교수도 있다.

영문과 같은 경우는 학교의 각종 영어시험도 영문과교수 중에서 출제를 해야 한다. 학과 내의 대학원 석·박사 종합시험 출제, 채점도 물론 과의 교수들 가운데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교수가 11 과목씩 출제해야 하기도 한다. 자기 지도학생의 논문뿐 아니라 동료교수 지도학생들의 석·박사 논문을 매학기 몇 개씩 심사해야 하고, 타학교 박사논문 출장심사도 '풀앗이'로 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학교의 보직이 있지 않은가. 현재 우리 학과의 11 명 교수 중 다섯 사람이 학교보직을

말고 있는데(한 사람은 두 개 보직 겸임), 이것도 우리 과의 '전성기'보다 많이 줄어든 숫자이다.

미국 대학의 경우, 웬만한 행정직은 행정직원이 맡기 때문에 소속학과 관련행정이 아닌 학교차원의 행정을 맡는 교수는 극히 드물고, 이 경우에도 행정직책을 맡는 것이 아니고 학교의 발전이나 학교생활개선을 위한 방향과 방법을 연구하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 학장 등 요직을 맡은 교수들이 직원출신 처장들과 평등한 분위기에서 학교 중대사를 의논하고 결정하려면 의식이 몇 번은 바뀌어야 할 것이다. 학교 재정상으로도 현재 소액의 '보직수당'으로 해결하는 자리에 전담행정관을 기용한다면 지출이 몇 배가 되니까 이러한 현상은 꽤 오랫동안 계속 될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처럼 교수에 대한 사회의 '수요'가 많은 나라도 없다. 수많은 언론매체에서 교수의 기고글을 게재하고, TV 대담이나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교수의 출연을 요청하고 수많은 사회단체나 운동에 교수의 참가가 요청되는 등 교수의 활용도(?)가 이렇게 높은 나라가 또 있을 성싶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정부기관이 주로 교수로 구성된 고정 자문단을 두는 나라가 또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이 반드시 나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모든 교수가 완전히 상아탑 속에서 살기를 고집해야만 그 나라가 발전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학문을 쌓고 사교를 많이 하는 교수들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사회부조리가 많고 사회의 기쁨이 부실한 나라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격·간점으로 사회참여를 하는 교수의 비율이 많고보니 본인들에게는 학문적 탐구는 부실해지면서 신체적·정신적 소모, 고갈현상이 일어나고 전체 교수사회의 분위기는 들뜨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교수가 강의와 학생교육, 지도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사회봉사, 참여를 하려면 교수일인당 업무량이 절대적으로 줄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보다 교수인구가 배는 늘어야 강의도 제대로 하면서 사회적 기여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학생 대 교수 40 대 1, 50 대 1 수준에서 학부생만 따질 때 20 대 1 정도로는 되어야 한다. 대학원생도 교수일인당 지도학생 5~6명 정도로 한 학기에 한 편 정도의 논문만 지도하도록 되어야 한다. 이 말은 곧 대학당국이 교수 T.O.를 2배 내지 3배 정도로 대폭 늘려야 된다는 말이다. 물론 막대한 재원을 요하는 문제이지만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니 온 국민이 정부에 교육투자 倍加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내 생각에는 T.O.를 늘릴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립대학들도 국립대학과 같이 조기정년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나라에도 대학교수를 계약고용제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은 이미 일기 시작했다. 서울대에서는 가까운 장래에 외국과 같은 테뉴어 제도를 도입할 모양이고, 다른 대학들도 대학근대화를 위해 조만간 따르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본다. 미국에서는 테뉴어 제도 때문에 많은 장래성있는 젊은 학자들이 착취당하다가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비인간적인 사례도 많이 보았지만, 전반적으로 교수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시되어 그 효과가 나려면 아직 10년은 있어야 될 것이고 대부분의 현직교수들은 중신임용이 된 상태이므로 교수조기정년제 실시가 요구된다. 사립대학에서도 조기정년제를 실시하면 학문적으로나 체력으로나 강의를 하는 것이 무리인 교수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며 다른 일거리를 구해볼 수 있고 학교는 신선한, 최선의 지식을 가진 젊은 교수를 채용하여 학문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할 수 있어 좋다.

실력있는 교수의 경우에도 오랫동안 연구하며 쌓은 학문적 지식을 실지로 나라경락이나 사회운동에 적용해 보고 싶으면 경식으로 퇴직을 해서 연금의 보장을 받으며 소신을 펼 수 있게 되면 '외도'에 따른 장기휴직의 문제도 야기되지 않고 당자와 국가, 사회를 위해 다같이 좋은 일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대체로 20년을 봉직한 사람은 조기정년을 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난하리라고 본다.

이것 역시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분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해마다 정부에서 낭비하는 예산만 모으더라도 대학을 여럿 살릴 수 있고, 지하철 건설이나 고속전철 건설 같은 사업보다도 교육을 바로잡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 아닌가. ■